

고린도 전서 7장

우리가 성경전체를 계속 공부해 가는 가운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을 펴십시오.

우리가 7장을 공부하기 전에, 바울이 여기 7장에 쓴 것에 대한 문화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결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에 대하여 질문한 편지를 받고 그것에 대해 대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매우 관능적인 도시였고 방탕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야만적이고 거친 삶을 살았다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고린도인 처럼 살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온갖 음란과 악한 행위로 차 있었습니다. 고린도 도시의 언덕 위에 있는 아크로폴리스에는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위한 대 신전이 지어졌습니다. 거기엔 천 명이 넘는 여승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프로디테에게 헌신된 거룩하고 신성한 노예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밤에 고린도 도시에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음란과 부도덕한 행위의 지속적인 유혹과 유용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고린도 도시에 만연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로마에 의한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핍박으로 인하여 교회의 장래는 불확실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죽음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바울은 결혼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지에 관한 그들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7장의 배경이며, 바울은 그가 받은 편지에서 그들이 한 질문에 관해 답장을 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1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독신생활을 의미합니다.

2 율법의 연고로(음란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3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가 부부로서의 의무 행하기를 억제하지 마십시오.

4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에게 성적 특권을 행하지 못하게 하지 마십시오.

5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금식과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 서로 합의하여 얼마 동안은 합방을 하지 않더라도 다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절제하지 못할 때 사단이 당신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6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권면이지 명령이 아님) **7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너희가 나처럼 독신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것은 은사라. 만일 너희가 독신으로 사는 은사가 없다면 시도하지 말라! 모든 사람은 각기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12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연유로 된 고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격은 어렵고 힘든 여행을 만약 그가 결혼을 했더라면 그가 이루었던 일들을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역을 위한 바울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는 그가 결혼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사람이 독신의 은사를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8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9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만약에 당신이 독신의 은사가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불타는 정욕과 욕망으로 다니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결혼에 대해 과부들이나 결혼하지 않은 자들을 다룰 때, 만약 그것이 받은 은사라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나 계속적인 성욕을 갖게 되면 결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10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흥미로운 것은 이것의 대부분이 바울 자신의 충고이지만, 7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그것이 비록 그의 견해일지라도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고 확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말할 때, 만약 우리가 강한 성경말씀이 뒷받침하는 근거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권위를 갖고 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견해를 말하는 부분에서는, “이것이 진리이다”라는 인상을 주지 말고, “나의 견해”로 표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견해를 가지고, 또 우리의 견해를 표현할 때에, 여기서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내가 말하지만, 사실 이것들은 주의 명령이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여자는 그녀의 남편과 이혼치 말라) **11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결혼을 일부일처제로 작정 하셨고 이것이 사는 동안에 계속 되어지기를 예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이 일생 동안 결혼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산상 수훈에서(마태복음 5:31-32), 어떤 남자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이와 결혼을 하면 그들은 간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세의 율법과 양립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서는(신명기 24:1-4), 어떤 남자가 어느 여자와 결혼하였는데, 만일 그 여자에게 어떤 부정한 일을 발견하면, 그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이혼을 허락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녀에게서 부정한 일을 발견하면”이라는 문구에 관하여 두 가지 관념의 학파가 있습니다. 한 학파는 이 부정함을 도덕적인 불결이라고 생각하였고, 다른 학파는 남편이 그녀에 대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요리를 싫어해도 이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개방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왔습니다(마태복음 19:3-9). 목적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사실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께서 모세가 말한 것에 상반되는 어떤 것을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낳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저들은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과 대조하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그들이 하려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고, 누구든지 이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그녀와 함께 간음함이니라. 그들은 예수께서 와서,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그의 아내를 버릴 수가 있냐? 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반복해서 가르치시기를, 만약 사람이 음행한 연고 없이 그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사람은 여자로서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은 함정을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였느냐? 고 했습니다. (그들 생각에 아하! 이제 걸려들었구나! 모세가 말한 것에 반대되는 말을 했으니 말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혼 증서를 주라고는 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 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본래 목적으로 가십니다(창세기 2:23-24).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결혼을 위한 하나님의 본래 목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만약 헤어지더라도 혼자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다시 화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거나 이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2그 남은 사람들에게(나머지 입장의 일들에 대해)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요 나의 충고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13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14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것은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상황에 대해 말할 수 있는데, 확실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질 나이가 되기 전에 죽은 자녀들에 관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에 의로우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옳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는 아내든 믿는 남편이든,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그들의 자녀에게 보호막이나 피난처가 되어, 한 사람이든 둘 다 믿는 부모의 자녀들은 이 경우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자녀들이 깨닫지 못할 것이지만, 그들은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장래에 미칠 영향, 즉 경건한 부모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경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냥 세상을 따라 사는 삶보다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모든 부모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문제는, 그들의 자녀들이 경건한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하여서 어떤 문제가 그들에게 일어나더라도 그들의 자녀들이 보호되어지고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될 지를 모르는 물음표의 삶을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믿지 않는 남편이 그의 믿는 아내로 인해 구원을 얻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1절에서 베드로는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아내의 문제에 관해 씁니다. 아내의 사랑과 그녀의 의로운 삶으로 인해 그녀의 남편이 구원을 얻게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계속해서 다른 것을 여기에 말합니다. **15후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 받을 것이 없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자면, 당신은 신자인데 당신의 아내나 남편이 신자가 아닐 때, 그 상대방이 당신의 종교와 당신이 성경책 읽는 것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고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면 갈라지십시오.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은 그 구속 아래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디까지 비약할 수 있는가는 견해에 달렸습니다. 당신이 상대방과 사는 것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거기에는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맺은 서약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이제 자유인이므로 당신이 원한다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보통 해석되어지는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16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들이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관찰하면서 그들이 개심할 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17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18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사실 문자 그대로 한다면, 어떻게 할례한 자가 무할례로 할 수 있는지 나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하는 말에 대해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만약 당신이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에게로 오면, 그 율법을 완전히 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 율법에 관한 것들을 계속해서 지키십시오. 확신하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 교회는 그들의 유대인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교회 안에는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고,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준비한 정결한 음식인 코셔를 먹는 일과 그러한 것들을 지키려는 열성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만약 당신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할례를 받았고, 율법아래 살고, 유대인의 전통을 지켰다면, 그러한 율법과 의식 등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굳이 받으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이방인 신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매우 힘들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만 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지로 초대 교회 안에서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사도행전 15장)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교회의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바울의 의견에 찬성을 표하는 결정을 내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율법의 예식과 음식에 관한 부분은 율법아래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태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과격한 변화가 있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19할례 받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따름이니라.** 할례는 사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이 할례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20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1**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계속적으로 속이면서 자유롭게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약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를 이용하십시오) **차라리 사용하라.** 기회가 온다면, 그것을 이용하여 자유로와 지십시오. 그러나 종이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22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자유합니다! 비록 당신이 종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주께 속한 자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습성들에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23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24**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바울은 이것을 세 번씩이나 언급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처럼 되려하거나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처럼 되려는 이런 과격한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종이라면 자유롭게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저 거기에 계십시오. 그의 부르심에 그대로 사십시오.

25 처녀에 대하여는 (이제 바울은 결혼한 것에서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갑니다): (그가 인정하기를)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26**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압박한 환난을 인하여 (내가 언급한 대로 이 때는 교회에 대한 로마의 핍박의 위협이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로부터 이것에 대한 약간의 시작의 암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압박한 환난의 때에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27**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놓이기를 구하지 말라**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28**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다른 말로하자면, 만약 당신이 결혼을 한 상태에서 당신이 순교를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하자, 그렇게 된다면 결혼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계속 지키기가 더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일이 힘들어질 것이며, 우리의 장래가 단축되어질 것입니다. 잠시 후에 바울이 말하겠지만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29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고로 (우리의 장래가 단축되어졌습니다) **이 후부터는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것은 전후 문맥을 보아야 합니다. 그냥 이것만 가지고 보지 마십시오. 32절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단축되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당신이 결혼을 했다면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30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우리는 슬픔에 빠질 시간이 없을뿐더러 기쁨에 빠질 시간도 없습니다)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 세상의 물질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의 물질을 소유하려는데 휩쓸려 물질이 당신을 소유하지 않게 하십시오.

31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에 가능하면 가볍게 접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히브리서 12:1-2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는 거추장스럽고, 필요 없는 것들과, 많은 방해물들을 지닐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십시오.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며 우리를 무겁게 누르는 방해물들을 제거하십시오.

32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생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다른 것들에 대한 욕망들이 예수님을 위해 맺는 사람들의 열매를 질식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무 일에도 마음 졸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무 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사귀고 싶어할 그런 걱정이 없고 태평스러웠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참으로 재미가 있었고 항상 농담을 잘 하였으며 익살스러웠습니다. 그의 옆에 있으면 즐거운

친구였습니다. 그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매우 성공하여 그는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는 더 이상 걱정이 없는 재미있는 친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한 밤 중에 거리를 헤매며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한 두 시에 거리를 걷고 있는 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가 쌓은 재물과 그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너무나 걱정을 했습니다. 그는 그 자신과 그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가장 잘 보호할 수 있을까 궁리하면서 걸어야만 했습니다. 밤마다 길 거리를 방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재물에 대해 너무나 걱정을 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심장 마비로 죽었습니다. 참으로 비극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것들로 염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소유하면, 그것을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것들이 너희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그리고는 바울은 말하기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33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34시집 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35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울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데 오직 한 가지 목적인 더 큰 헌신을 할 수 있음을 인하여 독신 생활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너희가 결혼을 하였으면, 주를 섬기고자 하는 이러한 갈망이 있다해도, 너희의 아내와 남편을 기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하노라.

36누가 자기의 처녀 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다른 말로 주를 위해 살려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거나 맹세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1970년대에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청년들이 모여서 “휴거 때까지 독신”이란 클럽을 조직했습니다. 이 청년들은 독신으로 살면서 그냥 나가서 주를 섬기며, 자유롭게 여행하며, 주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휴거 때까지 독신으로 살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클럽은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알기론 남은 회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만약 너희가 독신의 삶을 살수가 없거든, 괜찮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물론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에 목격한 것처럼 대단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이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37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휴거 때까지 독신”하기로 마음을 굳히면) **부득이한 일도 없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강한 성적 충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 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38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말한 것에 대해 나는 그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의견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또한 내 의견이 있습니다.)

39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당신이 선택한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확인하십시오!

40그러나 내 뜻에는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이것은 바울의 판단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결혼에 대한 실질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신의 은사가 없으면 결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바울은 독신 생활을 수용할 수 있거나, 독신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독신으로 살 것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개념은 더 큰 자유와 이동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사역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나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나는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합니다. 나는 전국을 횡단하며 다녔습니다. 내가 미주리 주를 향해 떠났을 때 나의 차에는 살구 한 봉지를 갖고 갔습니다. 단지 그것만 있으면 됐으니까요! 밤에는 길옆에 차를 세우고는 잠을 잤습니다. 일어나서는 다시 운전을 계속 했습니다. 식당에 멈출 것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오직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했습니다. 참으로 자유로이 여행을 했습니다. 나는 많은 것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내가 아내와 결혼을 한 후, 그때 우리는 아리조나 주에서 살고 있었는데 캘리포니아 주로 다시 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배가 고프니 커피 한 잔을 마시기를 원한다고 넌지시 비추었습니다. 나는 빨리 집으로 가고 싶어서 멈추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시간이 더 지체될텐데! 그렇지만 나는 멈추었습니다. 나는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란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한 부부든, 독신자들이든, 우리 모두를 위한 좋은 충고와 교훈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과, 독신생활과, 주님을 섬기는 일 등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아주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울을 통하여 주신 그 충고와 조언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만일 주께서 부르시고 독신의 은사가 주어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그 안에서 경험하는 자유를 잘 사용케 하옵소서. 독신으로서 그들에게 허락된 그 자유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종이 되도록 하옵소서. 우리 결혼한 자들은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돌봄과, 사랑과, 관심과, 존경과, 자비심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주님을 아직 믿지 않는 자와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들의 삶이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므로 인해 저들의 배우자들이 그들의 죄를 뉘우치게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